

# 웃음 보살 빛등거사 <11>

구성 : 김흥민



입이 찢어진 사람 [백유경(百喻經)]

어느 사람이 쌀 찢는 것을 보고 한 입 훑쳐 넣었다. 그때 아내가 그에게 말 걸었지만 입에 쌀이 가득 찬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 못하는 남편을 이상하게 여긴 아내는 입안에 종기가 났다고 생각하고는 의사를 불렀다. 남편을 진찰한 의사는 "매우 중한 병입니다. 칼로 입을 찢어야합니다"라고 말하고는 바로 칼로 입을 찢었다. 그 순간 남편의 입에서 쌀이 쏟아져 나왔다.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다. 온갖 악행을 짓고 계율을 범하고도, 허물을 숨겨 드러내기를 꺼리다가 끝내 자옥이나 아귀에 떨어진다. 그것은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조그만 부끄러움 때문에 쌀을 벌지 않아 칼로 입을 찢어 드러나는 것 같다.



## 옛 판화의 세계

목련존자의 효심  
목련구모(目蓮救母)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우란분절이 유행된 목련존자 이야기다. 부처님 십대제자중 신통제일인 목련존자가 생전에 악행을 저지른 어머니가 격정스러워 신통력으로 어머니 계산 곳을 찾다 아귀지옥에 떨어져 고통 받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구제하고자 노력했으나 목련존자의 신통력으로는 불가능하자 부처님께 어머니를 구해줄 것을 간청하는 장면으로 이뤄졌다.

<우란분절>에 따르면 목련존자가 처음 6신통을 얻고, 부모를 제도해 찢먹인 은혜를 갚고자 도의 눈으로 세간을 비취 보니, 죽은 어머니가 아귀 세계에 태어나 음식을 먹지 못해 피골이 상진한 모습이었다. 목련존자는 발우에 밥을 담아 어머니를 찾아 공양 올렸다. 어머니는 밥을 뭉쳐 입에 넣었으나, 불붙은 숯으로 변해 끝내 먹지 못했다. 이에 목련은 슬프게 울부짖으며 돌아와 부처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네 어머니는 죄의 뿌리가 깊이 맺혀 네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신과 지신도 역시 어찌할 수 없다. 마땅히 시방세계 대중 스님들의 위력과 신통력을 빌려야만 해탈을 얻게 되느니라. 마땅히 7월 15일에 7대의 조상과 현재 부모를 위해 밥과 온갖 맛있는 음식과 다섯 가지 과일을 담고 고일 쟁반과 그릇을 갖춰 온 세상의 달고 맛있는 음식을 쟁반에 담아 시방세계의 대덕 스님과 대중 스님에게 공양드리거라. 그리하면 현재 부모의 수명이 100년 동안 병이 없을 것이며, 일체 고뇌하는 근심이 없어질 것이고, 나아가 7대 부모에 이르기까지도 삼악도와 아귀의 고통에서 벗어나 인간



석씨원류목련구모(源流) 목련구모(目蓮救母) 1673년(간행) 판권(半部) 27.2×18.0cm

과 하늘 세계 가운데 태어나 복락이 다함이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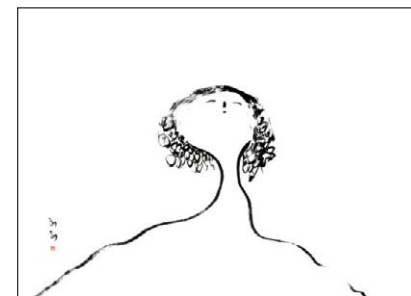
목련존자 효심으로 우란분절이 생긴 이래 우란분절은 조상들을 천도하는 불교의 5대 명절이 됐다. 이 때가 되면 있었던 조상의 존재를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된다. 백중날이면 한 번씩 생각나는 조상은 우리에게 이제는 잊혀져야만 하는 존재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상은 바로 우리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발원지이며 존재의 근원인 뿌리다. 이번 백중날은 온가족이 함께 짚어 가서 조상에게 공덕을 쌓고 자손들이 번창하는 지혜로운 날이 되길 바란다.

선학스님(명주사교편화백불교관장)

## 허허당의 세상만사

■ 천년의 세월을 씻고/慈悲

내 살아있는 동안  
괜찮다 울어도 울어도 괜찮다.  
세상에 울지 않는 자 아무도 없다.  
  
괜찮다 슬퍼도 슬퍼도 괜찮다.  
세상에 슬픔 없는 자 아무도 없다.  
  
괜찮다  
울어도 슬퍼도 외로워도 고독해도



살아서 울지 않는 자 아무런 사랑 없고  
살아서 슬픔 없는 자 아무런 기쁨 없다

살아서 외로움 없는 자 - 아무런 삶의 의미 없고  
살아서 고독 하지 않는 자 인생이랄 것도 없다.

괜찮다  
조금 불행해도 조금 행복해도  
내 살아있는 동안

## 지상낙원 · 이상향 · 최고의 파라다이스 바로 일리지움입니다

- 웰빙에서 웰딩까지 일불사 일리지움이 함께 합니다.

일불사에서 기존의 정교문화를 밝고 아름답게 개선시키고자 진보된 마인드와 남다른 경영방침을 앞세워 "일리지움"에 담아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ELYSIUM의 의미 축복받은 사람들이 사후에 모셔지는 지상낙원에서 어원을 빌려 일불사의 어미에 맞추었습니다.

우리모두의 이상향 최고의 파라다이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불사 주주인 성진스님입니다.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국토강산을 물려주기 위해 자연친화적이고 편리하며 성묘와 휴식을 동시에 누릴수 있는 현대적이면서 미래를 보는 해안으로 우리나라의 정교 문화에 큰발전을 이루고자합니다.



### "일불사 일리지움"

충청의 명산이 서대신지락에 위치  
▷ 교통편리 및 넓은주차공간, 셔틀버스운행

규모있고 품격있는 봉안 시스템  
▷ 자연친화적이고 합리적 안식처 및 아름다운 조경의 원기충만의 최적공간

철저한 관리와 영가천도의 제례의식 시행  
▷ 사찰에서 운영함으로 철저한 관리 및 제례의식 시행

☞ 찾아오시는 길

대전에서 30분거리, 경부고속도로 비봉분기점에서 -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 추부 I.C.에서 5분거리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 일불사 일리지움 041)754-6108

옥천대성사 예철스님  
현대불교 충청(대전충남충북)지사장

## 고성능 CCTV 카메라를 원하시는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고장 발생이 거의  
없는 꼼꼼한 시공

300GB  
대용량 영상기록

전화문의

DVR 모니터 250만원  
카메라 4대 (설치비용포함)

작동점검, 케이블 보수  
A/S 및 정기점검 서비스

043-732-5560  
010-9422-8453

♥ 입력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설치장소를  
답사하고 설계를 마친후  
설치작업이 시작됩니다.  
인도시스템

성단 카메라 시스템으로 사찰재산 안전하게 !!!